

해외낙농소식



조석진
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젖소의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지난 9월말 위스콘신 주의 Madison에서 개최된 ‘세계낙농박람회’에서 캐나다의 Dairy Quality Inc.는 낙농가가 우군의 건강상태와 유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신 모바일기술을 내놓았다.

캐나다의 Dairy Quality는 2012년에 설립된 회사로, 전통적인 낙농가뿐 아니라 유기낙농가를 위해 우군의 건강관리 및 전반적인 유질관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바일기술을 제공한다.

통합적인 우군건강관리

Dairy Quality의 ‘Dairy Health Check’는 통합적인 모바일기기로, 애플의 어떠한 모바일기기에든 손쉽게 장착할 수 있는 치밀한 현미경장치를 이용하여 체세포 및 케토시스검사와 임신진단을 할 수 있는 우군건강관리를 위한 장치이다. 이에 대해



Dairy Quality의 사장 Gary Jonas는, “케토시스 체크는 낙농가가 잠재적인 또는 임상적인 케토시스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여, 출산직후의 에너지수준 및 정확한 영양부족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산유량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다.

또한 그는 “Dairy Health Check를 통해 2차적인 자료의 집적을 추가함으로써 체세포의 영향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번식정보의 추적에 위한 예측기기 PregTest Tracker의 개발은 자연적인 진전이었다.”고 했다.

Dairy Quality에 의하면, 높은 체세포수는 유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낙농에 있어서 체세포에 대한 모니터링은 우군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아메리카의 우군에 대한 건강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Dairy Health Check는 우군의 생산성 및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속한 피드백 및 데이터의 집적

Dairy Health Check를 이용하면, 개체별 또는 병각탱크에 저장된 우유의 검사결과를 불과 6초 내외면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므로 만일 어떤 시료의 검사결과 체세포수가 높게

나타나면, 낙농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 캐나다의 Guelph 대학 실험결과에 의하면, Dairy Health Check의 정확도는 국제적인 낙농체세포 실험결과와 97% 이내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Dairy Quality의 판매책임자인 Chris Gans씨는 “이 같은 결과는 완벽한 우유검사기기의 개발을 위한 Dairy Health Check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목표는 낙농가가 우군의 건강자료와 기록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자료: Dairy reporter.com(By Mart Ellen Shoup, 2016.11. 6)
<http://www.dairyreporter.com/R-D/Dairy-Quality-Inc.-launches-mobile-solution-for-dairy-herd-health>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브렉시트(Brexit)와 낙농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에 의해 야기된 불확실성이 낙농분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확대되는 불확실성

EU를 탈퇴하기로 한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금후 영국이 EU 무역불력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그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며, EU 회원국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아직은 아무 것도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브렉시트와 관련한 한 가지 협상방안으로, 영국은 현재와 같이 관세 없이 EU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EU 회원국으로서의 경제적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EU 회원국 국민의 영국 내 거주 및 노동을 위한 자유로운 왕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EU 회원국들은 영국이 EU에 대한 재정부담을 하지 않고, EU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EU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영국과 상당한 교역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영국시장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교섭은 최장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는 않다.

영국과의 교역이 지속될까, 그러나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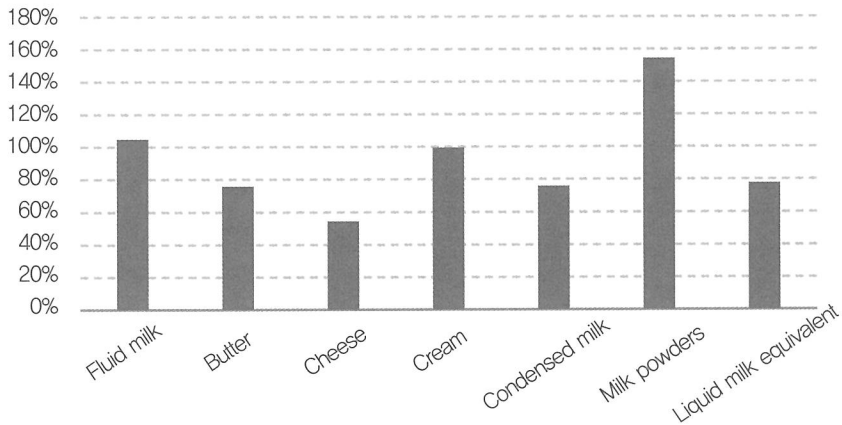
영국은 우유생산의 자급률이 대략 77% 정도이다(그림1의 'liquid milk equivalent'(원유환산자급률) 참조). 따라서 금후 영국과의 유제품 교역규모는 영국의 관세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비 EU 회원국의 영국에 대한 유제품수출 시 WTO 규정에 따른 관세율은 대략 40%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 또는 비 EU 회원국과 어떤 형태의 교역 및 관세협정을 맺을지 불분명하다.

영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치즈인 체다치즈의 85% 이상이 아일랜드로부터 수입된다. 그 같은 이유로 지난 해 무려 87,000톤을 영국에 수출한 아일랜드의 낙농관련 기업들은 영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만일 영국에 대한 수출이 막힐 경우에는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독자적으로 무역교섭을 추진하는 것은 이론상 불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국은 EU 탈퇴에 앞서 무역교섭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 경우 영국 기업들은 이미 EU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시장진입을 위한 새로운 무역교섭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화폐의 평가절하 가능성

단기적으로 영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려 할 것이다.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은 유로를 포함한 다른 나라 화폐에 대한 영국



〈그림 1〉 영국의 유제품 자급률

의 파운드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증대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유제품에 관한 영국은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파운드화의 가치하락은 영국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입유제품에 대해 비싼 가격을 지불토록 만들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광범위한 효과는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절하를 초래할 것이다. 만일 그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영국은 파운드화의 가치유지를 위해 이자율을 높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영국의 기업들의 투자비용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낙농가에 대한 영국정부의 지원은 불확실

최근 영국 낙농가소득의 약 7%는 EU 공통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농지 및 투자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EU 탈퇴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탈퇴 후에도 영국정부에 의한 보조금지급은 유지될 것이라 말하지만, 영국 낙농가의 미약한 정치력을 감안할 때 낙농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지속될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낙농부문에 대한 지지수준의 감축은 영국 낙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영국의 낙농부문 생산감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규제완화와 새로운 무역협정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EU를 떠날 경우 영국 내 기업들은 EU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러

나 영국이 EU를 떠난 후 주요 EU 회원국시장에 대한 접근은, 영국이 EU가 요구하는 다양한 규제 및 생산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EU 외의 중국, 미국 등과 독자적인 무역협상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영국은 유제품에 관한 한 자급이 안 된다. 따라서 영국이 비 EU 회원국에 대해 낙농 이외 분야의 시장접근에 대한 대가로, 이들 국가의 유제품에 대해 유리한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한, 영국 내 낙농분야 기업은 브렉시트 이후 타 분의 기업에 비해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다.

글로벌화에 대한 반대 또한 낙농부문에는 위협

영국이 왜 EU 경제블록을 탈퇴하기로 했는가에 대해 여러 분석가들은, 세계화에 따른 이득배분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반대 및 그로 인한 자유 무역의 축소는 전 세계 유제품무역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낙농은 타 농산물에 비해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러나 유제품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수출국의 낙농가 및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제품무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장벽의 강화는 전 세계 낙농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출처: Rabo bank(『Brexit and the Dairy Sector』 by Kevin Bellamy, 2016. 7.26)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